

HDPE, 2월 톤당 105만원까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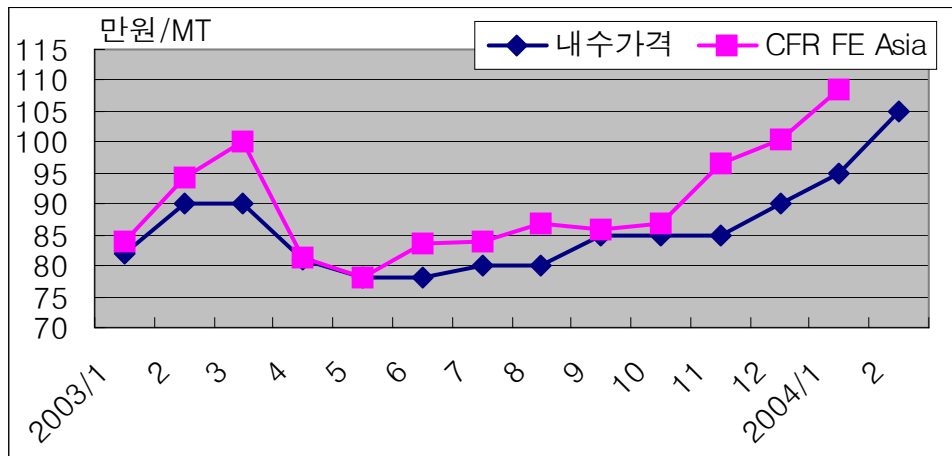
가공기업 수익성 더이상 봐줄 수 없어 ... 2월 가격상승으로 수요증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필름 그레이드 가격이 2월 톤당 105만~100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HDPE 생산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1월 톤당 95만에 거래됐던 HDPE 가격이 2월 10만원 인상된 105만원에 공급할 것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HDPE를 비롯한 PE(Polyethylene) 가격은 11월 이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업들이 더 이상 가격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HDPE 소비기업들은 2003년 하반기 내수경기 침체로 Resin 가격 인상분을 가공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HDPE 가격 인상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HDPE 가격추이(2003-2004)



그러나 HDPE 생산기업들은 2003년 12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중간재 가격이 3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재 가격상승이 석유화학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2월 가격인상에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생산기업들의 가격인상 통보에 따라 일부 수요기업들의 HDPE 2월 소비량을 1월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산기업들의 HDPE 재고가 부족해 선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HDPE 가격폭등에 대해 HDPE 생산기업들은 단기적인 폭등양상이 아닌 전반적인 트렌드로 분석하고 있으며, 2004년 HDPE 내수가격이 현재 거래가격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DPE 가격은 2003년 11월 이후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 외의 에틸렌(Ethylene) 수요량이 늘어 에틸렌 가격폭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30>